

##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회사의 AI 활용에 관한 '의사 최종 결정법' 도입

홍보배 연구원

### 요약

미국 건강보험회사는 AI 기술을 보험금 청구 심사 등 다양한 부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AI 기술의 부정확성 및 의사 결정 편향성 등으로 사회적 논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건강보험회사의 AI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 최종 결정법'을 도입하였는데, 동 법안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AI 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판단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명시함

- 미국 건강보험회사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을 다양한 부문에 활용하고 있으나, AI 기술의 부정확성, 편향된 의사 결정 가능성, 투명성 부족 등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미국 건강보험회사는 보장 사전 승인<sup>1)</sup> 요청과 보험금 청구 심사 과정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sup>2)</sup>
    - 맥킨지 컨설팅에 따르면, 건강보험회사가 AI 기술을 활용할 때 의료정보 수집 및 환자 기록의 교차 검증과 같은 사전 승인, 보험금 지급 요청 관련 작업의 50~75%를 자동화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됨<sup>3)</sup>
  - 건강보험회사의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결정이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AI 기술 활용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sup>4)</sup>
    -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평가하는 AI 알고리즘이 2개월간 약 30만 건 이상의 사전 승인된 보험 청구를 검토 없이 자동 거부했다는 혐의로 Cigna Healthcare가 소비자 집단 소송에 직면했음
    - 같은 해 11월, AI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치료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네소타주에서도 United Healthcare가 고소당했음<sup>5)</sup>
  - 이러한 이유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건강보험산업 적용에 있어, 이에 관한 판단 책임, 자율성 및 감독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주 정부 최초로 건강보험회사의 AI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 최종 결정법(The Physicians Make Decisions Act)'을 도입함

- 
- 1) 미국에서는 의사가 고객의 약이나 통상보다 많은 용량의 약을 처방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전에 건강보험회사에 보장 관련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을 받아야 함
  - 2) Consumer Health Advocacy at the NAIC(2024. 11),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 Insurance: The Use and Regulation of AI in Utilization Management"
  - 3) Mckinsey & Company(2022. 4. 19), "AI Ushers in Next-Gen Prior Authorization in Healthcare"
  - 4) Josh Becker Representing Senate District 13(2024. 12. 9), "Landmark Law Prohibits Health Insurance Companies from Using AI to Deny Healthcare Coverage"
  - 5) CBS News(2023. 11. 20), "UnitedHealth Uses Faulty AI to Deny Elderly Patients Medically Necessary Coverage, Lawsuit Claims"

- 캘리포니아주 조쉬 베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의사 최종 결정법'은 2024년 통과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됨
  - 동 법안의 핵심 내용은 ① AI 기술 활용 방식, ② 절차의 투명성과 감사, ③ 최종 판단권, ④ 환자 권리 보호임
    - AI 기술은 단순히 그룹 데이터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의료 기록 및 임상적 상황에 기반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이는 의사의 판단을 대체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됨
    - 보장 사전 승인 및 보험금 지급 의사 결정 과정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의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사나 적격한 의료 전문가만이 내릴 수 있으며, AI만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승인, 지연 또는 거부의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음
    - 환자의 데이터는 관련 법률(예: HIPAA)에 따라 보호되며, AI 기술은 의도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동 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회사의 AI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판단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명시함<sup>6)</sup>
    - 즉, 동 법안은 보험회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서도 자동화된 의사 결정 도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미국보험감독자협회(NAIC)는 AI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뉴욕, 플로리다주 등도 '의사 최종 결정법'과 유사한 규제를 검토·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지난 2023년에 NAIC는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AI 활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성 증진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한 지침을 발표함<sup>7)</sup>
    - NAIC는 2023년 초부터 보험회사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표준 수립을 목표로 지침을 작성해 왔으며,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부정확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한 편향, 데이터 취약성 등의 문제를 다룸
  - 거대한 의료 네트워크와 의료 제도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이 큰 뉴욕주는 '의사 최종 결정법'과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뉴욕주에서는 도시 의료 환경에 맞춘 AI 활용이 규제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주에서는 원격 의료 및 AI 기반 노인 돌봄에 중점을 두고 '의사 최종 결정법' 도입을 검토 중임
- '의사 최종 결정법'의 도입은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비효율성과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사항도 제기되고 있음<sup>8)</sup>
- 동 법안의 도입은 환자 및 보험 가입자의 권리 확대 및 만족도 증가, 소송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주마다 AI 규제를 시행하는 방식이 달라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면, 건강보험회사, 보험 가입자, AI 기업 및 의료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6) The Mercury News(2025. 1. 6), "New California Law Prohibits Using AI as Basis to Deny Health Insurance Claims"

7) 김가현(2024. 6. 17), 「미국, 보험회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NAIC의 가이드라인」,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8) Machinify(2025. 1. 14), "A Closer Look at the Physicians Make Decisions Act (PMDA)"